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

장은지** · 김민석***

I 알기 쉬운 개요

사회적 연결망은 개인의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망을 뜻하는 것으로 규모와 밀도, 다양성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양면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제한되면서, 그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어왔다. 특히 개인의 인간관계가 성인에 비해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관계의 축소가 우울감을 증폭시킨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의 여러 특징 중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족, 선생님, 친구 등 보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갖는 것이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보았다. 연구에서는 사회정서역량을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협동심, 그릿의 여섯 가지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은 청소년의 여섯 가지 사회정서역량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소년이 가지는 관계망이 다양해야 함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해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환경적 요인의 관점에서 다차원적인 지원과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본 연구는 2021년도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구두발표 논문임.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졸업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원, 교신저자,
minsk@krivet.re.kr

투 고 일 / 2022. 3. 7.

심 사 일 / 2022. 6. 7.

심사완료일 / 2022. 6. 20.

DOI/10.14816/sky.2022.33.3.55

I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이 가지는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 증진을 통해 사회정서역량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중1패널 3차년도(2020년도) 중학교 3학년 2,384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회정서역량의 주요 변수로는 패널데이터의 분류에 따라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협동심, 그릿의 6가지를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그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은 사회정서역량의 6가지 주요 변수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통제변수로 설정한 친구관계 역시 6가지 사회정서역량 모두에 대하여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사회적 연결망의 밀도뿐만 아니라 다양성 역시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을 보완하여 건강한 사회정서역량 발달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프로그램 및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틀인 생태체계관점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사회자본과 사회적 연결망의 보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사회자본 강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을 접할 수 있도록 환경적 여건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 청소년, 사회정서역량, KCYPS 2018

I. 서 론

코로나19 발생 이후 등교 축소, 학원이나 도서관 같은 청소년 이용 시설 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축소는 청소년의 부정적 감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1)의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72%의 청소년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힘든 점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고양시청소년재단(2020)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낮 시간을 주로 집에서 보낸 청소년이 82.9%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기간동안 가장 많이 한 활동은 동영상 시청(49.1%), 집에서 게임(20.6%)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야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59.8%는 불안과 걱정, 답답함,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청소년이 가지는 네트워크의 기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건강한 사회정서역량발달을 돕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회적 연결망은 정보 습득, 심리적 안정감, 사회적 유대감 등 내적·외적인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깊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는 것은 진로 관련 간접경험, 우울감 감소, 자신감 향상 등의 역량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지현, 한경혜(2012)는 사회적 연결망의 양이 많아질수록 행복해지는 반면 밀도가 증가하면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연결망의 양과 질 모두 청소년 우울증과 높은 수준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김주연(2017)은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사회적 역할 영역의 증가를 초래하여 인지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회정서역량발달에 사회적 연결망의 밀도가 아닌 다양성을 분석하여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는 뒷받침이 된다.

이처럼 사회적 연결망이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양면적 효과를 인식하고 다양한 관계망이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는 노동시장에서부터 노인, 개인의 행복감 및 건강, 온라인 네트워크 상의 관계망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오인근, 2009; 이민아, 2013; 최규련, 2010).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에서 강한 연결망을 통한 유대감과 지지체계의 중요성은 언급하고 있으나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이 가지는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사회적 연결망의 밀도뿐만 아니라 다양성 역시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이며,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생태학적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생태학적 이론에서는 발달을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적 과정으로 전제한다. 생태학적 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Bronfenbrenner (1994)는 인간 발달의 주요한 과제를 가족, 지역, 사회문화 등 개인을 둘러싼 환경체계와 개인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사회적 조건이 변화할 때 개인적 발달과 행동 역시 변화한다(장은지, 최재성, 2021). 즉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발달 역시 개인이 몸담고 있는 사회환경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사회정서역량이 비교적 취약한 청소년에게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개입이 있으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과 사회정서역량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사회자본과 사회적 연결망

본 연구에서 중요성을 보고자 하는 사회적 연결망은 사회자본 논의와 이론적 맥락을 같이한다. 사회자본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발생한다. Bourdieu(1986)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지속적인 관계의 연결망이 주는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 개인이 소유하는 사회자본은 개인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와 그 연결망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가지는 사회자본의 규모에 달려있다고 하였다(Bourdieu, 1986). 즉 개인이 가지는 사회자본과 사회적 연결망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며, 그 양이 풍부할수록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Coleman(1988)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가족 내 사회자본(social capital in the family)과 학교, 또래, 지역사회 등 가족을 제외한 외부 환경에서의 자본을 의미하는 가족 외 사회자본(social capital outside the family)으로 구분된다. 가족 내 사회자본은 진로관련 대화, 가족구조, 결속력 등을 통해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가족의 관심과 지원으로 연계되어 진로, 심리적 안정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서지원, 2006). 가족 외 사회자본 중 청소년에게 가장 영향력있는 자본은 청소년이 가장 많이 접하는 학교 사회자본이라고 Coleman은 설명하였다. 특히 여러 학교 관련 특성 중 학생-교사 관계, 친구관계가 좋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진로성숙도가 높고 개인에게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윤경, 이상은, 2005). 즉 가족 내·외부의 긍정적 관계망은 청소년이 가질 수 있는 사회자본을 풍부하게 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인식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연결망의 중요성은 Robert Putnam(1993)의 구조적 사회자본 논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Putnam은 사회적 자본이 시민이나 종교단체, 비공식 커뮤니티 네트워크, 가족이나 친구 사이의 유대, 이타주의와 신뢰 규범과 같은 사회적인 조직 구조의 형태로 구현된다고 주장한다(Tisenkopfs, Lace & Mierina, 2008). 또한 사회자본을 가족, 지역사회, 종교조직 등 정체성 및 소속이 유사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강력한 유대감을 가지는 ‘결합(bonding) 사회자본’과 직장 동료, 지인 등 더 멀고 약하지만 보다 횡적인 결속의 특징을 가지는 ‘중개(Bridging)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Tisenkopfs, Lace & Mierina, 2008). 관련하여 Woolkock과 Narayan(2000)은 두 가지 유형의 사회자본의 중요성은 다르며 결합 사회자본은 삶에서 살아가는 것(getting by)에, 중개 사회자본은 성공하는 것(getting ahead)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사회적 연결망은 규모, 밀도, 다양성을 측정함으로써 특징지어지며 주로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 중 규모와 밀도는 사회적 연결망을 강한 연결망과 약한 연결망으로 구분한 유형을 통해 설명되며, 이는 위에서 언급한 Putnam(1993)의 사회자본 유형 구분과 유사하다. 강한 연결망은 그 밀도가 높기 때문에 상호 간 높은 신뢰감과 깊은 유대감을 가진다. 하지만 그 크기는 작아서 소수 관계망의 형태이며, 주로 비슷한 종류와 질의 정보가 공유되어 정보의 이득은 낮은 단점이 있다. 반면 약한 연결망은 많은 관계망을 가지는 특징을 가진다. 보다 많은 관계가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다만 연결망의 밀도는 낮은 편으로 유대감과 신뢰감, 구성원 간의 조율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이가영, 김신영, 2009). 즉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란 개인이 얼마나 많은 수의 관계망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며, 밀도는 개인이 가진 관계망의 유대감과 신뢰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김주연(201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을 ‘사회적 역할 유형의 총합’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개인이 최소한 한 명 이상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 영역에서 역할의 개수로 측정될 수 있다(김주연, 2017). 예를 들어 또래집단 4명과 정기적인 접촉이 있다면 연결망의 크기는 4이지만 다양성은 또래집단 4명을 한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1이 된다. 반면 또래집단 2명과 학교 선생님 1명, 학원 선생님 1명과 정기적으로 대화한다면 연결망의 크기는 동일하게 4이나 다양성은 또래집단,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을 각각의 영역으로 보아 총 3이 된다.

직접적으로 연결망을 조사하는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연결망의 구성원을 물어보고 그 다음 연결망 구성원과 응답자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김주연, 2017). 반대로 간접적으로 연결망의 다양성을 측정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양복,

최항석(2016)은 주요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협약, 계약 등의 형태로 관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에게 필요한 이해관계자를 5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업무협약, 전략적 제휴, 계약 등 협력 수준을 통해 다양성을 평가하였다. 김주연(2017) 역시 연구대상이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대상 및 모임의 수를 계산하여 연결망의 다양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진로 관련 대화를 하는 대상들의 수를 계산하여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2.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건강한 사회정서역량은 자신 및 타인의 사회적, 정서적 측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으로 학습, 관계 형성, 문제해결 등 일상생활의 성공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김소영, 김현지, 이상수, 2018). 청소년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사회정서역량을 가질수록 또래나 교사 등과의 관계를 잘 형성·유지하고 있으며 학교생활 적응이나 소속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김은정, 김춘화, 이상수, 2015). 다만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 측면에서 과도기를 경험하는 시기로 개인 내적 요인과 환경 요인에 따라 사회정서적 특성이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이다. 즉 사회정서역량 역시 성별, 가구소득, 학교적응, 친구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을 살펴보는 데 있어 다양한 사회문화적 수준의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조성연, 김혜원, 김민, 2011).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으로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협동심, 그릿의 6가지 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요인, 개인 및 학교요인 등을 통제하여 살펴보았다.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개념이며,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타인의 삶과 비교했을 때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판단하는지의 인지적 측면과 삶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정서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최형임, 문영경, 2013). 여러 서구의 연구들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을 인지적 측면으로의 삶의 만족도와 감정적 측면으로의 행복감이 더해진 것이라는 합의를 이루고 있다(Pacek & Radcliff, 2008; Simsek, 2008; Frey & Stutzer, 2000). 삶의 만족도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기효능감(김의철, 박영신, 2004), 가족 및 또래관계(고영남, 2008), 교사와의 관계(이은주, 2003), 사회적 지지(조아미, 2004) 등이 있다.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김정민(2010)은 주변 상황에 대해 원만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청소년의 경우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가치있고 소중하며 긍정적이고 유능한 존재라고 믿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과 평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이선미, 2021).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전 생애에 걸쳐 발달되며,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과 발달과정, 만나는 관계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문은혜, 2019).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에 대한 인식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이므로 청소년이 생활하는 모든 단계와 장소에서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박정운, 2019).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은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외로움 등 여러 심리적 문제와 관련되어 주변 사람들과의 적절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뜻한다. 특히 만성적인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고립 및 회피성 성격장애, 학업실패, 자살시도, 범죄행동 등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윤미설, 이동형, 2015). 민원홍과 손선옥(201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은 개인의 기질적인 것보다는 발달맥락적인 환경과 대인관계적 요인의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협동심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라는 집단 공동체에서 보내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다. 협동심은 청소년들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술과 규범을 습득하며, 갈등과 경쟁을 줄일 수 있게 한다(김도희, 2020).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임양미, 2021), 또래관계(김도희, 2020) 등이 협동심의 향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릿은 성장(Growth), 회복력(Resilience),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끈기(Tenacity)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열정과 인내를 의미한다(정진리, 황성만, 2020). 주로 학업성취, 진로와 관련한 장기적 발달과 연관이 있으며 성공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릿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짐에 따라 여러 연구와 대중들은 그릿을 가르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정진리, 황성만, 2020).

3.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과 사회정서역량발달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정서적요인을 강한 연결망과, 취업과 진로 및 빠르고 다양한 정보 습득을 약한 연결망과 연결시켜 언급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 및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사회적 연결망의 중요성 분석 연구(김경미, 2012), 청소년의 삶의 질과 사회적 연결망의 효과 분석 연구(김은경, 김경희, 2018), 사회적 연결망의 참여정도와 지역주민에 대한 삶의 만족도 분석 연구(김혜연, 2011) 등은 사회정서적 요인과 강한 연결망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김주연(2017)은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결망의 크기와 다양성의 증가가 사회적 역할 영역의 증가인 경우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으며, 동질적 영역에서 역할 인원의 증가라면 상대적으로 정서적 지지를 받는데 유리하여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가영과 김신영(2009)의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밀도가 높은 연결망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일반적 사고에 더하여, 밀접하지 않은 관계망 역시 서로에게 강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밀접하게 연결된 집단의 경계를 뛰어넘음으로써 ‘약한 연결망의 강함’ 효과가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관계가 밀접하거나 밀접하지 않거나 다양한 관계망 역시 사회정서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다양한 연결망이 사회정서역량발달에 작용하는 효과를 파악하고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발달을 위해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강한 연결망이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다양한 연결망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결망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연결망이 다양할 때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이하 KCYPS 2018)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3차년도(2020년도) 중학교 3학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 2018 조사에서는 전국의 중학교 3,213개교에 다니는 중학교 1학년 448,816명 중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162개교 2,59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그중 본 연구에서는 3차년도 청소년 응답자 2,38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1)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진로(진학, 직업 선택 등)와 관련하여 다음 분들과 얼마나 자주 대화(또는 상담)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가족 내·외부의 활용가능한 연결망을 사회자본으로 보았던 Bourdieu(1986)의 연구를 바탕으로, 가족을 포함하여 청소년에게 중요한 진로 관련 대화를 하는 상대를 청소년이 가지는 사회적 연결망으로 보았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구축된 경우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네트워크 다양성을 측정한 방법을 토대로(김주연, 2017; 이양복, 최항석, 2016), 본 연구에서는 진로 관련 대화 상대의 개수를 측정하여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은 7그룹의 대화 상대(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척·친지, 학교 선생님, 상담교사, 학원/과외 선생님)와 얼마나 자주 대화하는지 각각 Likert 척도로 ‘자주 대화한다’, ‘가끔 대화한다’,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해당 없음’으로 응답하였다. 그 중 각 대화 상대와 ‘가끔 대화한다’, ‘자주 대화한다’라고 응답한 대화 상대를 ‘1’로,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해당 없음’으로 응답한 대화 상대를 ‘0’으로 리코딩하였으며, 대화 그룹의 개수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 합을 계산하여 최고 7점, 최저 0점으로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연결망 문항에 대한 대상별 응답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사회적 연결망 대상별 응답분포 (빈도수, %)

	자주 대화함(4)	가끔 대화함 (3)	별로 대화하지 않음 (2)	전혀 대화하지 않음 (1)	해당 없음 (0)
부	701(29.40)	1,049(44.00)	385(16.15)	133(5.58)	116(4.87)
모	1,437(60.28)	705(29.57)	128(5.37)	45(1.89)	69(2.89)
형제·자매	580(24.33)	605(25.38)	452(18.96)	403(16.90)	344(14.43)
친척·친지	143(6.00)	443(18.58)	813(34.10)	758(31.80)	227(9.52)
학교교사	245(10.28)	1,123(47.11)	725(30.41)	291(12.21)	0(0.00)
상담교사	87(3.65)	405(16.99)	612(25.67)	802(33.64)	478(20.05)
학원선생님	430(18.04)	900(37.75)	431(18.08)	341(14.30)	282(11.83)

2) 사회정서역량

본 연구에서는 KCYPS 2018 조사에서 사회정서역량영역으로 제공하고 있는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협동심, 그릿’의 6가지 변수를 설정하였다. 삶의 만족도(5 문항), 행복감(4문항), 자아존중감(9문항), 사회적 위축(5문항), 협동심(13문항), 그릿(7문항)의 설문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요인분석 및 Cronbach α 신뢰도분석을 통한 검증 후 모형에 투입하였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문항에 대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모든 변수는 점수가 높을 수록 그 변수를 설명하는 의미가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표 2
사회정서역량 문항별 평균 점수 (4점 기준)

문항		N=2,384		
		평균	표준 편차	신뢰도 계수
삶의 만족도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2.54	0.67	0.823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2.79	0.67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2.89	0.70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2.56	0.71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2.36	0.83	
행복감	전반적으로 나는 ...	3.13	0.53	0.728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3.11	0.58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	2.95	0.62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	3.02	0.71	
자아 존중감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2.93	0.62	0.863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04	0.79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2.84	0.70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3.04	0.66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2.93	0.75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3.12	0.77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3.06	0.61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3.11	0.76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3.00	0.65	
사회적 위축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2.06	0.90	0.880
	부끄럼을 많이 탄다	2.21	0.88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2.04	0.83	
	수줍어한다	2.26	0.82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2.29	0.90	

문항		N=2,384		
		평균	표준 편차	신뢰도 계수
협동심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거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준다	2.80	0.65	0.920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2.98	0.64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2.90	0.72	
	그룹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2.82	0.72	
	그룹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2.69	0.76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76	0.71	
	그룹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3.14	0.63	
	그룹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맡은 일보다 많은 일을 하여 그룹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97	0.65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3.02	0.65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3.01	0.67	
	그룹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2.95	0.67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2.90	0.68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3.00	0.63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2.97	0.63	
그릿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2.63	0.74	0.726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2.50	0.76	
	나는 노력가이다	2.72	0.73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2.55	0.72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2.60	0.76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2.62	0.71	
	나는 부지런하다	2.46	0.74	

* 역코딩 문항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거주지역), 가구요인(월 평균 가구 소득,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가구원 수), 개인(학교)요인(친구관계, 청소년 활동, 교내외 동아리 활동, 학업성취 만족도, 성적, 학교생활 만족도)의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연령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학년은 중학교 3학년으로 동일하나 출생연도에 따라 15~17세로 구분하였다. 거주지역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수도권 지역

으로, 나머지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가구 요인의 4가지 변수는 모두 보호자 설문 항목을 활용하였으며, 관련 응답값 중 결측치는 평균값으로 대체하였다. 가정의 경제 수준은 월 평균 가구 소득을 소득없음과 100만 원 미만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하여 총 12개의 범주로 응답하였다. 아버지·어머니의 학력은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석사·박사)으로 구분하여 응답하였다. 가구원 수의 경우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가구로 분류하였다.

셋째, 개인(학교) 요인으로 친구관계 13문항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모든 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청소년 활동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 과학/정보 관련 활동, 모험/개척 관련 활동, 자원봉사활동, 직업/진로 관련 활동, 국제 교류 활동, 건강/보건 관련 활동,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환경 보존 관련 활동의 9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각각 연간 참여 경험 횟수에 대해 1점 ‘참여 경험이 없다’, 2점 ‘1~2회’, 3점 ‘3~4회’, 4점 ‘5회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교내외동아리 활동 역시 동일하게 연간 참여 경험 횟수로 응답하였다. 학업성취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는 1점 ‘매우 불만족’, 2점 ‘매우 만족’, 3점 ‘보통’, 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한다’로 응답하였다. 성적은 전체 과목 학업 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며, 응답자들은 1점 ‘매우 못함’, 2점 ‘못함’, 3점 ‘보통’, 4점 ‘잘함’, 5점 ‘매우 잘함’으로 응답하였다.

3. 분석방법

모든 자료는 STATA v.14.1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변수는 각 변수들의 빈도(N)와 비율(%), 평균값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 실시한 통계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¹⁾.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부록 참조.

IV.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2,384명의 연구대상자 중 남학생이 1,278명(53.6%), 여학생이 1,106명(46.4%)으로 유사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학력은 중학교 3학년이나, 연령은 15세(2006년 출생) 30명(1.3%), 16세(2005년 출생) 2,345명(98.4%), 17세(2004년 출생) 9명(0.4%)로 구분되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1,178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49.4%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1,206명으로 50.6%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인 476명(20.0%)으로 가장 많았으며, 9명(0.4%)이 소득없음으로 응답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학력 모두 4년제 대학 졸업(각각 40.5%, 33.2%)이 가장 많았다. 가구원 수는 4인 가구가 1,281명(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5인 가구(20.9%), 3인 가구(16.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표 3
연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N=2,384	
		빈도 (N)	비율 (%)
성별	남	1,278	53.61
	여	1,106	46.39
출생연도	15세 (2006년)	30	1.26
	16세 (2005년)	2,345	98.36
	17세 (2004년)	9	0.38
거주지역	비수도권	1,206	50.59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178	49.41
월 평균 가구 소득 ²⁾	소득 없음	9	0.38
	100만 원 미만	21	0.88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80	3.36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183	7.69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413	17.35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476	20.00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471	19.79
	6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	279	11.72
	7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	185	7.77
	8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109	4.58
	9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52	2.18
	1,000만 원 이상	102	4.29

구분	N=2,384	
	빈도 (N)	비율 (%)
아버지 학력	학교 안 다님	1
	초등학교 졸업	6
	중학교 졸업	25
	고등학교 졸업	653
	2~3년제 대학 졸업	448
	4년제 대학 졸업	920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221
어머니 학력	학교 안 다님	1
	초등학교 졸업	11
	중학교 졸업	25
	고등학교 졸업	716
	2~3년제 대학 졸업	657
	4년제 대학 졸업	767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136
가구원 수	2인	60
	3인	395
	4인	1,281
	5인	498
	6인	114
	7인 이상	32

2. 기술통계 분석 결과

주요 변수인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의 경우, 총 7점 만점에 평균 3.71점(표준편차 1.71)으로 확인되었다. 종속변수로 활용한 사회정서역량의 6가지 변수는 모두 최소 1점, 최대 4점이었으며 삶의 만족도 평균 2.63점(표준편차 0.55), 행복감 평균 3.05점(표준편차 0.46), 자아존중감 평균 3.01점(표준편차 0.49), 사회적 위축 평균 2.17점(표준편차 0.71), 협동심 평균 2.92점(표준편차 0.47), 그릿 평균 2.56점(표준편차 0.45)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사용한 개인(학교)요인의 6가지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소년 활동 참여 횟수와 교내외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의 경우 점수는 참여 횟수가 아닌 응답 범주에 따른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³⁾.

2) 가구 관련 응답값 중 결측치는 평균값 대체

3) 앞서 설명한 대로 '참여 경험이 없다'는 1점, '1~2회' 2점, '3~4회' 3점, '5회 이상'은 4점으로 응답함.

표 4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1	4	2.63	0.55
행복감	1	4	3.05	0.46
자아존중감	1	4	3.01	0.49
사회적 위축	1	4	2.17	0.71
협동심	1	4	2.92	0.47
그릿(Grit)	1	4	2.56	0.45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	0	7	3.71	1.71
친구관계	1.38	4	3.11	0.39
청소년 활동 참여 횟수	1	3.67	1.38	0.43
교내외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	1	4	1.60	0.74
학업성취 만족도	1	5	3.21	0.94
성적	1	5	3.27	0.91
학교생활 만족도	1	5	3.27	0.99

3. 연구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과 사회정서역량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연결망이 다양할수록 풍부하고 의미있는 경험과 빠른 정보습득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정서역량발달을 위해서는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 3학년의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 정도가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을 확인해본 결과,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은 삶의 만족도($\beta=.045$, $p<.001$), 행복감($\beta=.026$, $p<.001$), 자아존중감($\beta=.013$, $p<.05$), 사회적 위축($\beta=-.062$, $p<.001$), 협동심($\beta=.036$, $p<.001$), 그릿($\beta=.034$, $p<.001$)의 6가지 사회정서역량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연결망이 다양할수록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표 5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삶의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위축	협동심	그릿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독립 변수	사회적 연결망	0.045*** (0.006)	0.026*** (0.005)	0.013* (0.005)	-0.062*** (0.008)	0.036*** (0.005)	0.034*** (0.005)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 (여자=1)	-0.082*** (0.020)	-0.110*** (0.017)	-0.134*** (0.017)	0.117*** (0.027)	0.019 (0.017)	-0.071*** (0.017)
	연령	-0.109 (0.079)	-0.062 (0.064)	-0.049 (0.066)	-0.061 (0.106)	0.037 (0.065)	0.061 (0.066)
	거주지 (수도권=1)	-0.043* (0.020)	-0.024 (0.017)	-0.010 (0.017)	0.093*** (0.028)	0.013 (0.017)	-0.001 (0.017)
	월 평균 가구소득	-0.001 (0.005)	0.013** (0.004)	0.008 (0.004)	-0.001 (0.007)	-0.003 (0.004)	-0.000 (0.004)
가구 요인	아버지 학력	0.016 (0.013)	0.004 (0.011)	0.001 (0.011)	-0.021 (0.017)	0.019 (0.011)	-0.000 (0.011)
	어머니 학력	0.003 (0.014)	0.002 (0.011)	-0.004 (0.012)	-0.025 (0.019)	0.013 (0.011)	0.002 (0.012)
	가구원수	0.008 (0.012)	-0.008 (0.010)	-0.003 (0.010)	0.013 (0.016)	0.006 (0.010)	-0.009 (0.010)
개인 (학교) 요인	친구관계	0.362*** (0.026)	0.444*** (0.021)	0.512*** (0.022)	-0.516*** (0.036)	0.434*** (0.022)	0.236*** (0.022)
	청소년 활동	0.056* (0.026)	0.064** (0.021)	0.031 (0.022)	0.026 (0.035)	0.135*** (0.021)	0.025 (0.022)
	교내외동아리 활동	-0.022 (0.015)	0.017 (0.012)	0.026* (0.013)	0.026 (0.020)	0.049*** (0.012)	-0.010 (0.012)
	학업성취 만족도	0.137*** (0.014)	0.050*** (0.011)	0.048*** (0.012)	-0.010 (0.019)	-0.010 (0.011)	0.019 (0.012)
	성적	-0.005 (0.015)	0.016 (0.012)	0.072*** (0.012)	-0.095*** (0.020)	0.091*** (0.012)	0.119*** (0.012)
	학교생활 만족도	0.055*** (0.011)	0.025** (0.009)	0.031** (0.009)	0.020 (0.014)	-0.007 (0.009)	0.024** (0.009)
	상수항	0.733*** (0.141)	1.202*** (0.114)	0.882*** (0.118)	4.361*** (0.189)	0.711*** (0.116)	1.157*** (0.118)
R^2		0.204	0.238	0.281	0.148	0.263	0.171
수정된 R^2		0.200	0.234	0.277	0.143	0.259	0.166
F		43.49***	52.97***	66.15***	29.35***	60.48***	34.79***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

삶의만족도	사회적연결망, 성별(-), 거주지(-), 친구관계, 청소년활동, 학업성취 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행복감	사회적연결망, 성별(-), 월평균가구소득, 친구관계, 청소년활동, 학업성취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사회적연결망, 성별(-), 친구관계, 교내외동아리활동, 학업성취만족도, 성적, 학교생활만족도
사회적위축	사회적연결망(-), 성별, 거주지, 친구관계(-), 성적(-)
협동심	사회적연결망, 친구관계, 청소년활동, 교내외동아리활동, 성적
그릿	사회적연결망, 성별(-), 친구관계, 성적, 학교생활만족도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이 가지는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과 사회정서역량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가지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은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협동심, 그릿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연구에서 사회정서역량으로 설정한 6가지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인지기능 및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김주연(2017), 이가영과 김신영(2009) 등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시되는 함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연결망의 밀도 뿐만 아니라 다양성 역시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는 다양한 연결망과 사회정서역량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일부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증에 더하여서, 사회적 연결망의 밀도가 심리내적요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통념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도출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을 보완하여 건강한 사회정서역량발달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이다. 청소년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사회적 연결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 양과 질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이 가지는 사회적 지원의 부족은 사회관계망의 상호 협력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김성경, 2015).

연구의 이론적 틀인 생태체계관점이 개인을 둘러싼 미시-중시-거시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보다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사회자본 및 사회적 연결망의 보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먼저 청소년이 가지는 가장 작지만 깊은 결속력의 가족사회자본을 강화할 수 있다. 서정아(2013) 등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가족사회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주 양육자에 대한 자녀관계 교육, 가족치료 등 가족 간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자본 축적을 위해 기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양지훈, 김민아, 2016). 양지훈과 김민아(2016)는 메타분석을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함으로써 부족한 사회적 연결망은 결국 인위적이고 프로그램화되어 시도되는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전문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차별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관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자본을 쌓아갈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진로교육·마을교육·지역 학습생태계 등을 통해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을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은 응답자의 주변 대상별 진로 관련 대화 여부를 합산하여 활용하였으나, 이것이 응답자의 ‘사회적 연결’을 정확히 보여주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친구관계, 온라인 상의 관계와 같은 청소년이 가지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들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7개 대화상대들의 뚜렷한 특징이 반영되지 않았다. 청소년 시기의 깊고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사회적 연결망에 초점을 맞춘 문항 개발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가장 최근 시점에서의 분석을 목표로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나, 향후 다년간의 패널데이터 축적 및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연결망 다양성이 중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이 이후의 고등학교 생활, 나아가 졸업 시점 및 성인 시기까지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사회적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 연결망 또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종단분석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이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과 함께 연결망의 밀도를 함께 고려한 연구를 후속 연구로 제안하고자 한다. 강한/약한 연결망에 따른 사회적 연결망의 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위해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을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밝힐 수 있다면 사회적 연결망의 효용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양시청소년재단 (2020). **코로나19,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결과**.
- 고영남 (2008). 중학생의 부 애착, 모 애착, 또래 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15(2), 111-131.
- 김경미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과 한국생활 만족도: 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5(2), 185-208.
- 김경민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5, 40-74
- 김도희 (2020).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협동심의 직렬 다중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8(5), 485-495. doi:10.14400/JDC.2020.18.5.485
- 김성경 (2015).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의 경로모형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51, 23-46.
- 김은경, 김경희 (2018). 앱 세대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와 유형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9(3), 275-301. doi:10.14816/sky.2018.29.3.275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김주연 (2017). 한국 노인의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과 인지기능. **한구인구학회**, 40(4), 1-24.
- 김혜연 (2011).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1-29. doi:10.22944/kswa.2011.13.3.001
- 문은혜 (2019). **청소년기 자존감 초기치, 변화율과 성인모색기 삶의 만족, 또래애착 사이의 종단적 관계**.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원홍, 손선옥 (2017).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의 발달 궤적에 대한 부정적 또래관계의 영향: 부모지도감독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4(1), 75-99.
- 박병선, 배성우,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 (2017).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보건사회연구**, 37(2), 72-101. doi:10.15709/hswr.2017.37.2.72
- 박정윤 (2019).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분석**.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정아 (2013).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청소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4(1), 135-164. doi:10.16999/kasws.2013.44.1.135
- 서지원 (2006).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족자원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1-14.

- 양지훈, 김민아 (2016).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1), 65-94. doi:10.14816/sky.2016.27.1.65
- 오인근 (2009). 저소득 노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무망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 복지관 서비스이용의 조절효과. **노인복지연구**, 44, 111-130. doi:10.21194/kjgsw.44.200906.111
- 윤미설, 이동형 (2015).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에 따른 사회정서적 기능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2(9), 301-326.
- 이가영, 김신영 (2009). 청소년의 사회연결망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2(2), 21-45. doi:10.36907/krivet.2009.12.2.21
- 이민아 (2013).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우울: U자형 관계와 대인신뢰의 조절효과. **한국사회학회**, 47(4), 171-200.
- 이선미 (2021). **청소년 자아존중감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양복, 최항석 (2016). 지배구조 및 네트워크 다양성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독경상학회**, 34(3), 57-77. doi:10.18237/KDGW.2016.34.3.057
- 이은주 (2003).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행동과 학교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현, 한경혜 (2012). 예비노인의 친구관계망 특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2), 170-205. doi:10.15709/hswr.2012.32.2.170
- 임양미 (2021).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중학생의 협동역량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 및 그릿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2(1), 62-74.
- 장은지, 최재성 (2021).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비빈곤학생과 빈곤학생의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23(3), 149-174. doi:10.19034/KAYW.2021.23.3.06
- 정윤경, 이상은 (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59-305.
- 정진리, 황성만 (2020).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 교과외 활동과 양육 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11), 263-312. doi:10.21509/KJYS.2020.11.27.11.283
- 조성연, 김혜원, 김민 (2011). 생태학적 맥락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9(3), 87-98.
- 조아미 (2004). **청소년의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규련 (2010). 가족환경과 학업 및 친구요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28(6), 95-111.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코로나19 이후 1년, 청소년 정신건강 변화 기록. **청소년 상담 이슈페이퍼**. 2021 Vol. 02.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 241-258). Westport, CT: Greenwood.
- Bronfenbrenner, U. (1994). Ecolog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Vol. 3, 2nd. Ed. Oxford: Elsevier.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doi:10.1086/228943
- Frey, B. S., & Stutzer, A. (2000).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The economic Journal*, 110(466), 918-938. doi:10.1111/1468-0297.00570
- Granovetter, M. (1983). The strength of weak ties: A network theory revisited. *Sociological Theory*, 1, 201-233. doi:10.2307/202051.
- Pacek, A. C., & Radcliff, B. (2008). Welfare Policy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An Individual-Level Assess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89(1), 179-191.
- Schuller, T. (2007). Reflections on the use of social capital. *Review of social Economy*, 65(1), 11-28. doi:10.1080/00346760601132162
- Simsek, O. F. (2008). Happiness Revisited: Ontological Well-Being as a Theory-Based Construct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5), 505-522.
- Tisenkopfs, T., Lace, I., & Mierina, I. (2008). Social Capital. In J. D. vander Ploeg & T. Marsdem (Eds.), *Unfolding Webs, the Dynamics of Regional Rural Development* (pp. 87-110). Van Gorcum.
- Woolcock, M., & Narayan, E. (2000). Social capital: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policy.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5(2), 225-249. doi:10.1093/wbro/15.2.225

ABSTRACT

The effect of diversity of social networks on adolescents' social emotional competencies*

Jang Eunji** · Kim, Minse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diversity of social networks on the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ies of adolescent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diversity of social networks. To this end, the data of 2,384 middle school seniors (2020)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and life satisfaction, happiness, self-esteem, social withdrawal, cooperation, and grit were set as the main variables of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ies.

As a result of the main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diversity of social network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ll six major variables of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 result of verifying that diversity affects adolescent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ies, suggesting that multidimensional programs and policy interventions are needed to connect various human and social resourc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d a plan to strengthen family, school,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to prepare environmental conditions which will allow for greater access to various social networks.

Key Words: diversity of social network, adolescents, social emotional competence, KCYPS 2018

* This paper is based on remarks originally presented at 10th KCYPS Conference in 2021.

**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Masters Gradu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Researcher, Corresponding author, mink@krivet.re.kr

부록.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1																			
2	0.190*	1																		
3	0.151*	0.568*	1																	
4	0.106*	0.574*	0.681*	1																
5	-0.175*	-0.237*	-0.295*	-0.342*	1															
6	0.202*	0.284*	0.315*	0.388*	-0.240*	1														
7	0.181*	0.353*	0.307*	0.401*	-0.357*	0.320*	1													
8	0.031	-0.049*	-0.089*	-0.096*	0.053*	0.064*	-0.048*	1												
9	0.021	-0.028	-0.019	-0.016	-0.012	0.007	0.016	-0.028	1											
10	0.106*	-0.037*	-0.031	-0.019	0.053*	0.040*	0.011	0.040*	0.009	1										
11	0.079*	0.065*	0.133*	0.113*	-0.087*	0.088*	0.074*	-0.065*	0.005	-0.058*	1									
12	0.066*	0.067*	0.070*	0.061*	-0.091*	0.106*	0.066*	-0.018	0.004	0.020	0.340*	1								
13	0.072*	0.073*	0.088*	0.077*	-0.105*	0.120*	0.080*	-0.023	0.007	0.022	0.361*	0.629*	1							
14	0.139*	0.019	-0.006	-0.012	0.007	0.023	-0.015	0.025	0.018	-0.015	0.110*	-0.049*	-0.037*	1						
15	0.076*	0.302*	0.415*	0.448*	-0.303*	0.409*	0.251*	0.082*	-0.011	-0.027	0.087*	0.024	0.061*	-0.013	1					
16	0.124*	0.082*	0.127*	0.104*	-0.033	0.221*	0.078*	-0.012	-0.009	0.049*	0.056*	0.038*	0.072*	0.067*	0.092*	1				
17	0.019	0.022	0.095*	0.105*	-0.004	0.176*	0.040*	0.044*	-0.004	0.056*	0.068*	0.027	0.034	-0.002	0.094*	0.364*	1			
18	0.091*	0.301*	0.198*	0.247*	-0.128*	0.153*	0.234*	0.033	-0.017	0.028	0.052*	0.077*	0.093*	-0.019	0.125*	0.041*	0.040*	1		
19	0.129*	0.207*	0.186*	0.268*	-0.185*	0.260*	0.313*	0.048*	-0.009	0.043*	0.163*	0.184*	0.192*	-0.041*	0.140*	0.105*	0.105*	0.611*	1	
20	0.070*	0.199*	0.140*	0.160*	-0.042*	0.051*	0.132*	-0.037*	-0.005	-0.095*	0.021	0.023	0.019	-0.049*	0.094*	-0.016	0.061*	0.269*	0.159*	1

* $p < .05$

1. 사회적 연결망 다양성 2. 삶의만족도 3. 행복감 4. 자아존중감 5. 사회적위축 6. 협동심 7. 그릿 8. 성별 9. 연령 10. 거주지 11. 월 평균 가구소득
 12. 아버지 학력 13. 어머니 학력 14. 가구원수 15. 친구관계 16. 청소년활동 17. 교내외 동아리활동 18. 학업성취만족도 19. 성적 20. 학교생활만족도